

2022
04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새정부에 바란다.

02 KAMT NEWS

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체결

08 INTERVIEW

엄태현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인터뷰

11 NEWS

감염병 예방관리 재정
임상병리사 확대

제471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진단검사 역량의 변혁, 환자케어의 향상 한국백크만쿨터주식회사
-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시스멕스코리아(주)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Be Happy in Life with 봄메디칼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새정부에 바란다]

임상병리사 '전문 역량·사회적 위상 제고' 상응 미래지향적 정책 절실 보건의료·사회환경 변화 걸맞은 의료기사 제도 개선

사회적 위상 제고를 바탕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문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새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만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파수꾼으로서 사투를 벌이는 임상병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평가를 받고,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 방역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임상병리사의 위상 제고와 업무 환경 조성에 새정부가 힘써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출로 5월 10일 출범하는 새정부가 코로나 방역에서 역력히 보듯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역할에 걸맞은 위상 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꾀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정책을 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자원 배분으로 관련 학문 발전을 선도하면서 인력 왜곡도 최소화하는 노력이 민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의 사회·경제적인 역할 확대를 위한 입법도 필요한 것으로 요청됐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급속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임상병리사' 전문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기능 검사, 감염관리, 분자유전자 검사에서 나아가 의료기기 품질관리사 진출을 이끌도록 커리큘럼 확립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기초아래 임상병리사협회는 전문임상병리사 제 법제화를 추구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 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의과학기술인인 임상병리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기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집중한다는 각오이다.

주요 정책과제로 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건수 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및 독소조항인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에서 15인 미만' 문구 삭제와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임상병리사 등 네 분야 의료기사와 사회복지사가 지 다섯 직종 모두 갖추면 의료기사 등 확보 인력 모두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 근무 필수 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 법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검진 내시경 검사시 심전도 검사를 필수로 무화화 임상병리사가 정맥채혈을 할 때 별도의 채혈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채혈료가 산정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임상병리사 인력확충 및 국가검진 필수인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필수인력 배치의무 법제화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의료기사의 진료나 이화학적 검사 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의료기사 면허 규정에 '현장실습 과목 이수, 졸업자'로 명시 △대학교육과정 평가인증 법제화 등 질 높은 의료기사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환경에서 충실한 역할 수행을 담보하도록 의료기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기법이 전문화·다양화되며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임상병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법령에 임상병리사가 의료기사 직역의 하나로 포함돼 있어 병리사의 전문성 등을 반영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별도법 제정도 모색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창설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온 업권수호·확대를 통한 전문인력으로서의 끊임없는 질향상 노력에 부응하는 새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재삼 촉구했다.

중앙회소식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 회원대상 릴레이 헌혈 나선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적십자사, '헌혈 참여' 생명나눔 MOU 체결**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헌혈을 독려하는 생명나눔 헌혈문화 확산운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확산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월 11일(금) 오후 3시, 염창동에 위치한 서울중앙혈액원 대강당에서 혈액관리사업을 총괄하는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중앙회에서는 장인호 협회장, 임동욱 정무이사, 김동현 법제이사, 조미숙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에서는 강복만 회장과 황문선·신상현 부회장, 조인숙 재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적십자사에서는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과 김동석 서울중앙혈액원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적십자사와의 생명나눔 협약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회와 연 2회 이상 헌혈캠페인을 실시해 헌혈에 동참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헌혈 참여자가 급감해 혈액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병원에서는 환자상태에 따라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닌 혈액 수급에 따라 일정을 정하는 실정이다."라며 "협회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수혈가능한 혈액보유량이 3일 수준을 오기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 속에서 헌혈 이어가기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전국 임상병리사들께 감사하며, 보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적십자사와 헌혈증진 및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펼쳐나가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2.03.01 ~ 03.31

- ▶ 3월 2일 IFBLS 학술분과 회의
- ▶ 3월 4일 임상병리평가원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 3월 5일 캄트특공대 유튜브 촬영
제4차 역사편찬실무위원회 회의
제7차 학술발전위원회 회의
- ▶ 3월 7일 중소병원발전위원회 회의
-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참여
- ▶ 3월 10일 제471차 상임이사회
- ▶ 3월 11일 IFBLS 국제의전 및 통역 관련 회의
제8차 학술발전위원회 회의
- ▶ 3월 12일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 3월 15일 IFBLS 학술,섭외분과 회의
- ▶ 3월 19일 IFBLS 조직위원회 회의
- ▶ 3월 24일 제2차 시험위원회
- ▶ 3월 25일 IFBLS 학술위원회 회의
- ▶ 3월 26일 제5차 역사편찬위원회 회의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2.03.01 ~ 03.31

- ▶ 3월 4일 보건복지부 방문
- ▶ 3월 10일 제471차 상임이사회
- ▶ 3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체결식
- ▶ 3월 14일 대만학술대회 축사 영상 촬영
- ▶ 3월 15일 의기총 제2차 정기회의
- ▶ 3월 17일 회장단 회의
- ▶ 3월 19일 경남도회 방문
- ▶ 3월 21일 한국로슈진단 사진 촬영
보건의 날 축사 영상 촬영
- ▶ 3월 22일 용인동부경찰서 출석
- ▶ 3월 24일 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회의
- ▶ 3월 26일 제5차 역사편찬실무위원회 회의
- ▶ 3월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의원총회 참석
- ▶ 3월 31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중앙회소식

**IFBLS 조직위 3차 회의
등록, 프로그램 구성 등 논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3월 19일(토) 오후 2시 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 3차 IFBLS 조직위원회를 가졌다. 조직위원회는 13명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42명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으로는 △등록분과 IFBLS 앱개발, CD & GAD 참가자 등록여부,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진행 여부 △학술분과 학술 프로그램 타임테이블, 국내외 연자섭외, 학술장 배치, 구연/포스터 기획 △전시분과 WHO CI사용여부, IFBLS 홍보부스 요청 △재무분과 각분과 예산안 요청이 있었다. 차기 회의는 대만 학회가 열리는 4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에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설립 신청**

장인호 협회장은 3월 4일(금) 오후 3시 조미숙 사무총장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를 방문,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물리치료사협회 김지연 국장, 방사선사협회 박현미 국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3개 의료기사단체가 평가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각 단체별 평가원 설립문제를 논의한 간담회에서 의료지원정책과 김태경 사무관은 "8개 직역단체가 굳이 따로 평가원을 설립해야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협회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8개 직역단체간 학제 및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캄트특공대 첫 영상 올려
코로나 검체 채취 과정의 애환 생생히 담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식 유튜브 '캄트특공대'가 성공적으로 개설됐다. 3월 21일 '코로나 검체 채취 이모저모'라는 주제의 첫 영상이 업로드 됐다. 영상에서는 윤지호(삼성서울병원), 정해은(청주의료원) 두 명의 임상병리사가 출연해 코로나 검체 채취 업무 당시 겪었던 에피소드와 힘들었던 당시 상황들을 생생히 풀어냈다. 또 임상병리사이며 랩퍼로 활동중인 'MC GUY' 손명진(인천성모병원)이 두 번째 영상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밤의 씨앗은 빛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CHEMISTRY Dx C 880I, Dx 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 I 800
- HEMATOLOGY Dx 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 SERUM PROTEIN IM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MAST ALLERGY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2022년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뉴타이페이 화상 컨퍼런스 개최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에서는 3월 19일(토) 오후 3시 Webex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시회-뉴타이페이 시도회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날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각 시도회 회장들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원진소개, 2018년 협정된 MOU에 대한 리뷰와 펜데믹 이전 양측 시도회가 함께 했던 여러 행사와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들을 함께 시청하며 옛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재 전 세계의 관심사이며 현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 하나인 코로나19의 양 시도회의 국가 상황 공유와 더불어 PCR 검사기법 등의 학술적인 내용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각 시도회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회 서정훈 회장은 펜데믹 상황으로 한 공간에서 만나 함께 이야기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크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그 아쉬움을 풀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언젠가 이 지독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바꿔버린 펜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양 시도회가 한 공간에서 웃으며 다시 만나 지금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소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다시 찾아 올 것을 기대하며, 10월 수원에서 개최하는 IFBLS에서 만남을 가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NewTaipei TAMT
GwangJu KAMT
Video Conference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2022년 제60차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022년 1월22일(토) 오후 2시에 화상으로 개최했다. 대의원 총56명 중 52명이 참석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식에서는 협회장표창 권의훈 회원(안동병원), 특별공로상에는 전임 도화장인 임대기 회원, 중앙회 김상원 행정부회장이 수상했으며, 경북의료기사총연합회장은 이종우 정보통신이사, 자랑스런 경북임상병리사상은 김용진회원(부포스코의원), 공로상은 김성호(구미차병원), 도화장상은 김영숙회원(구미김두환내과)의 5명 감사패는 ㈜대하메디텍 감상문대표가 수상했다. 최우수분회 수상은 울진영덕분회, 우수분회는 영천분회와 포항1분회가 수상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2021년 경과보고, 감사보고 그리고 규정개정안에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2022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정회원 배가운동, 경북도회 주변 대학교와의 학술적 교류 활동, 부서별 멘토단 시범운영 활동 등을 공유했다.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2022년 인천의료기사 학술대회 개최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김한규)는 코로나로 부족해진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원들과 시작한 헌혈릴레이 행사의 헌혈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인천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2022년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천사회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5월 14일 2022 인천의료기사 연합 보수교육 및 기자재 전시회, 국제포럼을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 그랜드볼룸에서 '감성과 기술의 만남, 8개에서 우리로의 맞춤, 새로운 기준'으로 맞춤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김한규)는 코로나로 부족해진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원들과 시작한 헌혈릴레이 행사의 헌혈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인천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2022년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천사회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5월 14일 2022 인천의료기사 연합 보수교육 및 기자재 전시회, 국제포럼을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 그랜드볼룸에서 '감성과 기술의 만남, 8개에서 우리로의 맞춤, 새로운 기준'으로 맞춤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총회 개최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회장 안영희)는 지난 2월 25일 대한임상신경생리검사학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2021년에 대한 결산보고와 2022년에 대한 예산보고를 진행했으며 2021년 진행한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사랑의 헌혈나눔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강복만) 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동석)이 사랑의 헌혈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헌혈운동을 전개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며, △보 건복지분야 생명나눔 헌혈참여 △혈액사업 헌혈증진 문화 확산 △건전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활동 확산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의료윤리학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 을지대학교 김명철 교수 선출
장인호 협회장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 통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 8개 의료기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윤리 학회가 새 깃발을 내걸었다.

한국보건의료윤리학회는 3월 19일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김명철 교수(을지대 물리치료학과)를 선출했다.

윤리학회 감사는 김한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와 한솔기 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창립대회는 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등 8개 의료기사 단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한국보건의료윤리학회는 총 8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인이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과 현명한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직업윤리 교육 및 학술적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철 초대 회장은 "현대 사회에는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학술적 연구와 콘텐츠 개발, 윤리사례 발굴 등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학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의기총회장을 맡고 있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윤리학회 창립 축하 영

상메시지에서 "윤리학회 창립으로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을 통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부 회장단 선출에 이어 2부 행사로 김명철 신임회장의 '보건의료 윤리 인식도 조사 연구'에 대한 발표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창범 교수의 '의료직역에서의 윤리 문제'의 강연이 열렸다.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LDL Subfraction을 확인하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해결책
Lipoprint® LDL Subfraction 검사
Lipoprint®는 지단백질의 모든 하위 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 [결과 항목]
- VLDL
 - IDL 1~3
 - Large LDL : LDL 1, 2
 - Small dense LDL : LDL 3~7
 - LDL Particle Size
 - Total LDL Cholesterol
 - Total Cholesterol

봄메디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현대저식산업센터 A동 3층
Tel. 02-477-5916 Fax. 02-477-5917

<초대석> 엄태현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수혈 의료 핵심 임상병리사 등 수혈학회 임원 참여도 확대 필요 헌혈자의 송고한 동기 복돋고 편리한 헌혈 시스템 개선 뒷받침 혈액은행 실무 과정 체험 문제점·개선사항 공론화 노력 요망

Q 수혈학회는 헌혈부터 혈액관리, 검사 및 수혈까지의 모든 과정과 세포 치료 및 그 연관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정보 교환 및 연구로 안전한 수혈요법 및 세포치료법을 정착시켜 의학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 중점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A 대한수혈학회는 1982년 창립했습니다. 당시 설립목적은 보면 “수혈 및 그 연관 학문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혈요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 상호 간 지식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였습니다. 학회 회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혈 수혈요법을 이루는데 노력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적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성분을 분리하여 수혈하는 성분수혈이 정착했습니다. 골수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줄기세포가 말초혈액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차 일반적인 치료법이 되어 가고 있는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조혈모세포 채취 등의 세포치료법도 수혈의학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혈의학의 관심은 혈액제제의 활용도를 넓히고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혈액제제의 수요증인 노령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젊은 층에 편중되어 있는 헌혈자는 줄어들게 되어 만성적인 혈액부족현상이 발생하고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인식에서 귀중한 혈액자원의 적절한 사용이 강조됐으니, 더욱 중요한 것은 과도한 수혈이 환자의 임상결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수혈학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2009년 수혈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개정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정수혈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헌혈감소 및 이에 따른 의료기관에 공급 혈액 공급 부족으로 환자 및 의료인 모두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얼마전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회원 릴레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혈액수급난을 극복해 환자에게 항상 적절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A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협약을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협약 등을 통해 많은 헌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의 혈액수급난을 극복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혈액은행은 혈액제제를 보관하는 은행입니다. 혈액에 대한 은행제도가 가능한 것은 혈액제제가 비교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적혈구제제의 경우 35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혈액원의 재고는 3~4일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방학, 휴가철과 같은 헌혈 공백이 수일간만 있어도 즉시 공급문제가 발생합니다. 헌혈자의 송고한 동기를 복돋우고 편리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충분한 혈액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수혈에 대한 관리는 충분한 혈액재고를 확보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Q 대한수혈학회는 1982년 창립 이래 수혈의학 및 수혈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혈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적정수혈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결과가 제공되도록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자혈액관리(PBM)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환자혈액관리를 적혈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최적의 임상결과를 얻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혈에 대한 치료방법 중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방법인 수혈을 꺼린다는 측면에서 수혈의학과는 접점이 있습니다. 수혈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빈혈교정이 필요한 임상상황에서는 수혈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빈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수혈이외의 방법으로 빈혈 교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환자혈액관리는 임상현장에서 수혈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을 감소시킴으로써 적정수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수혈률은 일종의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질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2022년 수혈학회 창설 40주년을 맞아 수혈가이드라인 및 수혈의학 교과서 개정판을 펴내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대한수혈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학회 40주년사와 수혈의학 교과서를 편찬하려고 합니다. 학회 40년사는 서동희 선생님께서 편찬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고 계시며 5월27일 학술대회때에는 책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혈의학 교과서는 서울의대 한규섭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발간하신 교과서를 대한수혈학회에서 이어받아 개정판을 내려고 합니다. 수혈의학 교과서는 1993년 초판이 발간되었고, 2014년 4판까지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약 8년의 세월이 흘러 개정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운 선생님과 임지향 선생님이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말에는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수혈관련 임상학회와 임상병리사협회, 간호협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정부관계 기관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 협력해나가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대한수혈학회는 수혈의학을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학회입니다. 수혈의학의 대상은 헌혈부터 수혈의 모든 과정이므로, 관련된 학회, 협회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헌혈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한 마음혈액원, 그리고 수혈 의료의 핵심인력인 임상병리사, 간호사의 수혈학회도 임원으로서의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는 매년 연말에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동심포지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국가 수혈가이드라인(수혈지침) 설정 취지 및 의료기관에서의 적용(운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국가수혈가이드라인은 적정수혈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혈은 우리나라에서 2~3천 곳의 의료기관에서 매년 수 백만건이 시행 될 정도로 흔한 의료행위입니다만,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고도의 시술로서 충분한 지식과 술기를 통해 신중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국가수혈가이드라인은 수혈 관련 의학적 지식과 법률 및 제도 정보를 수많은 의료현장에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적인 의미에서 수혈적 정성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의료현장에서 수혈(의학) 관련 전문의와 임상병리사와의 파트너십과 병리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의료기관의 업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습니다. 혈액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혈과 관련된 임상적 지식을 갖춘 전문의와 탁월한 실무 능력을 갖춘 임상병리사가 함께 해야만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행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 과정에서 체험되는 여러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성을 좀 더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항상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자 김봉재 회원 인터뷰

Q1.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2002년 보건직 8급 공채로 시작해 국립경찰병원과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서 근무한 김봉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팀 임상병리검사실에서 검사 업무와 함께 전염대비 총무계획, 재난대비 응급의료, 생물테러 대비대응,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 휴직 중에 있습니다.

Q2. 이번이 두 번째 발간이세요. 다시 펜을 잡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2. 첫 책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를 많이 읽어주신 선후배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 덕분에 2020년 한국출판문화 올해의 도서 5권에 선정됐습니다.

당시에는 처음 출간하는 책이라서 무거운 내용은 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쓰고, 보건소와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이슈화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코로나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후 펜데믹 상황이 커지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도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양성자가 늘었다며 사람들을 더욱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두 번째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여름에 원고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Q3. ‘감염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3. 제목 그대로 감염병에 대해 잘 못 알려진 내용과 인식을 바르게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두렵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과도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양성자가 정말 환자인가?’ 하는 의문부터가 시작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잘 보면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닌데, 뉴스에 나오는 양성자와 사망자만 보고 공포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도 정말 효과 있는 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3개월의 탐을 두고 백신을 계속 맞아야하는가, 마스크가 정말로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졌으면 하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Q4. 주제가 당시 방역체계를 비판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A4. 출간 준비 할 때 말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선뜻 나서기는 두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줄 한줄 써 내려갔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이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이견 감기 정도의 약한 바이러스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위험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주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양성자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중증이라면 감염병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연령대별 발생과 사망자 추이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Q5. 책이 나온 후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A5. 가장 크게 아쉬운 건 타이밍이었어요. 작년에 출간하려 했는데, 출판사를 몇 군데 옮기다가 몇 달이 늦어져 겨울이 지나가 버렸어요. 백신 패스 시행으로 불편을 겪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하는 시민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급했지요. 또한, 1월 2월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여러 사람이 더욱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때 책이 나와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 돈을 들여 출간했어요. 급하게 진행하기도 하고 선거와 맞물려 인쇄소에도 시간이 평상시보다 더 걸렸어요. 내용상으로도 이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쓰고 싶었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비판적으로 보일까 봐 말을 아끼며 썼어요. 실제 상황은 책의 내용보다 더욱 심각하죠. 서민 경제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문 닫은 가게나 사업체를 많이 보게 돼요.

Q6.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다른 회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A6. 이 세상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내가 접하는 정보가 맞는 건가?’ 하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Q7. 앞으로 회원님의 계획, 목표를 알려주세요.

A7. 검사실 업무와 감염병관리 업무, 재난대비 응급의료 업무 등을 오래 한 경험으로, 연구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참여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도 더 내고 싶어요. 임상병리 후배들에게 유익한 강의도 하고 싶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A8. 보건소와 공공의료 기관에도 임상병리사가 많이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학조사사를 하거나 감염병 관리에도 다른 전공보다 우리 임상병리사가 다양한 미생물을 배우고 접해서 더욱더 알맞은 분야라 생각합니다.

병원 경력을 가지고 공공의료와 공공기관에 많은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 정책을 낼 때 전문가의 입장으로 많이 참여해서 올바른 정책을 낼 수 있게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로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systemx |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항상 고객 곁에 함께 하는
온라인 고객 지원

- Remote Calibration**
연 2회, 원격 캘리브레이션
- Remote A/S**
에러 발생 시, 간편하게 받는 원격 A/S
- Online Inspection**
연 4회, 온라인 정기 점검
- Online QC**
데이터 신뢰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 지원 신청 문의 : 1833-5366

Fast, 빠르게
Fresh, 새롭게
Friendly, 가깝게

NEWS Newsletter
www.ifbls2022.org

IFBLS 2022의 최신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IFBLS 2022 e뉴스레터를 작성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 관련 소식들을 회원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뉴스레터에서는 장인호 회장의 인사말과 IFBLS 2022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2차 뉴스레터에서는 조기등록 일정과 초록 제출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는 IFBLS 2022 홈페이지(ifbls2022.org)의 [Newsletter]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뉴스레터 구독은 홈페이지의 [Newsletter Subscription]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뉴 클릭 후 빈칸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은 이메일을 기입하시고 중복검사 후 아래의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IFBLS 2022의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뉴스레터에는 IFBLS 2022의 학술 프로그램, 연자 소개, 후원사 소개 등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IFBLS 202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 및 제 60회 대한임상병리사학술대회 (IFBLS 2022)는 참가자들에게 최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FBLS 2022의 공식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IFBLS 2022의 다양한 소식들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BLS 2022의 얼리버드 등록 및 초록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임상병리 분야의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최신 지식 공유의 장이 될 **IFBLS 2022**가 수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AMT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및 초록을 접수하세요!

코젠바이오텍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110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임상병리사

건양대학교병원 길은지, 이한별

길은지 이한별

3월 23일 오전 7시 30분 대전 중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70대 승객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승객들은 곧바로 버스기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버스를 정차시킨 후 119에 신고했다. 마침 버스에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출근중이던 3명의 의료진이 동승 중 있었는데, 119 구조대원이 오기까지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에 동승중이던 의료진중 두 명의 임상병리사인 이한별 회원, 길은지 회원에게 당시 심정에 대해 들어봤다.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길은지 대전건양대학교 병원 건강증진팀에서 근무중인 10년차 임상병리사 길은지입니다.

이한별 대전건양대학교 병원 뇌파검사실에서 근무중인 1년차 임상병리사 이한별입니다.

Q2. 응급환자분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나요?

길은지 3월 23일 오전 7시30분경에 201번 버스를 타고 출근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다급하게 차를 세워달라며,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 분을 계속 불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버스기사님이 백미러로 상황을 살펴보고 119로 신고 요청을 하셨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해 환자 상태 및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승객들과 함께 환자를 눕혔고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약 1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구조대원분에게 환자분을 인계했습니다.

이한별 당시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응급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빨리 신고해야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버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Q3. 응급처치를 실전에서 적용하신 것이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를 진행하시면서 드셨던 생각과 환자분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길은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눈 앞에 펼쳐져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어떤 생각보다 환자분 의식이 얼른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한별 119구조대원에게 환자분을 인계 했을 당시 환자분이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추후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걸 알았고, 안전하게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점점 회복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많이 부듯했습니다.

Q4. 앞으로 임상병리사로 선생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길은지 건강증진팀에서 저의 업무 중 일부가 결과 입력 및 사후관리 입니다. 임상병리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진을 통해 수검자의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한별 건양대학교병원 뇌파검사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았고 돌발적인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숙련도 역시 검사실 내에서 트레이닝 받으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검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공부할 것입니다. 신경과에 검사하러 오시는 모든 환자 환우 분들께도 더 좋은 서비스와 검사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Q5. 마지막으로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길은지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모든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과 코로나 최전선에 계신 선생님들 항상 존경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구 착용하고 검사에 임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한별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꽃 구경도 가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상병리사 파이팅!

임상정도관리협회 학술지 투고 안내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학술지 'Laboratory Medicine and Quality Assurance (LMQA)' 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말)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다. LMQA 학술지 범위는 진단검사의학 제 분야와 정도관리 분야로, 주로 새로운 검사 항목이나 검사 장비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시행 중인 기존검사 항목의 적절한 활용 및 개선, 국내 검사기관간의 검사의 표준화와 일치화 및 한국인 참고치 설정, 정도관리 방법의 적용 경험 등의 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원고 투고료 및 게재료는 없으며, 매년 우수논문상 2편, 논문상 5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임상정도관리협회 회원들의 훌륭한 연구결과가 LMQA 학술지를 통해 많이 발표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원고 투고 관련 정보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논문투고'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대전보건대·대전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 산학 업무 협약 체결



대전보건대학교가 2월 24일 교내에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와 바이오·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산학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석현 대전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장(대전시방사선사회장)·송치웅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장·이준희 대전시물리치료사회장·유지애 대한작업치료사회 대전충청지부회장·류순옥 대전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김용태 대전시 치과기공사회장과 대전보건대학교 이병기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산학 간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발전 도모 △산학분야 연계 협업 프로그램 등 기술(제품) 공동 개발·운영 △특화분야 산학공동연구 및 산학연계 협의체(IC)와의 산학협력 △성과 공유·확산 공동 워크숍 등 참여 △지역사회 공헌 산학협력 서비스 제공 △산학연계 교육 협력 및 공동 참여 확대(현장실습 교육, 주문식 교육, 캡스톤 디자인 교육, 현장견학, 인턴십 등) △상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호남대 임상병리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최강임병' 성료



호남대학교 임상병리학과(학과장 장유지)는 3월 2일~4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022학년도 학과 신입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최강임병'을 진행했다.

신입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알파스쿨에서는 학교와 학과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해 교수와 동아리 소개, 학과 미래 비전 제시 등 학생들의 궁

금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학과에 설치된 최신 임상병리 장비를 소개하고 체험하면서 신입생들의 학과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를 높였다.

알파스쿨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대형병원을 옮겨 놓은 듯한 실습실과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호남대 임상병리학과에 자부심을 느꼈다. 앞으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덩치 커진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시장 인력난 '비명'...인재 양성 속제 검체분석요원(임상병리사 등) 등 인력필요, 일정 경험 거쳐야 현장투입 가능



제약바이오 산업이 갈수록 성장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

3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CRO 기업들은 계속되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 CRO 시장이 덩치가 커지면서 너도 나도 '경력직 모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CRO는 임상시험 모니터링(CRA), 검체분석요원(임상병리사 등), 코디네이터(CRC), 통계 및 데이터관리사, 규제 및 질보증 담당자 등의 인력이 필요한데,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경험을 거쳐야 현장 투입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CRO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과제(임상)가 몰리고 있다. 특히 시의성이 중요한 코로나 임상을 하는 CRO의 경우 인력난은 더 과중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CRO 업무 특성상 다소 진입장벽이 있다. 신입 직원을 바로 임상 현장

에 투입시킬 수는 없고 1년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한다"며 "3년 정도는 경력을 쌓아야 인력들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시행한 국내 임상시험 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CRO 시장 규모는 2014년 2941억원에서 2020년 5542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1.1%에 달했다. 임상시험 승인 건수(생동성 제외)도 2018년 679건에서 2019년 714건, 2020년 799건, 2021년 84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신설 CRO기업이 추가로 생겨나고, 몇 년 새 일부 기업들이 상장하거나 상장을 준비하면서 인력 구하기가 더 심해졌다.

작년 CRO기업인 에이디엠코리아와 씨엔알리서치가 상장에 성공했으며, 한국약역연구소와 디티앤씨알, 디티앤사노메딕스 등 기업들은 IPO(기업공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국내 CRO기업 관계자는 "이전부터 CRO업계에서는 국내 CRO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인재 육성을 하면 해외 CRO기업에서 경력직을 데려가는 일이 흔했다"며 "물론 좋은 조건으로 인재를 데려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채가기'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마치 국내 CRO기업에서 1~2년 근무한 뒤 해외 CRO나 제약사로 이직하는 것이 순서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수년 전 국내 CRO기업에서는 해외 CRO기업에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기업들도 처우가 많이 좋아지면서 국내사 간 이동도 많아진 것으로 안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인력난 문제는 실제 임상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CRO를 이용해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임상을 하다 보면 담당자가 몇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의 연속성이 떨어져 임상 일정 등이 지연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임상CRO 협회나 개별 기업들은 임상시험 전문 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며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CRO 인력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몇 년 정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기사' 등에도 재정 지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확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종전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재정적 지원을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외에도 의료기사 및 간호구조사, 약사 및 한약사, 응급구조사 등이다.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건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약국, 보건소·보건의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포함된다.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방역 등에 힘쓴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도 수당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기관 등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을러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EW

패혈증 진단을 위한 New Biomarker

HISCL Presepsin Assay

HISCL Presepsin 출시



Fully Automated System

24시간 검사 가능
결과 보고 : 17min/test



Reliable Result

Imprecision(cv) : 1.5 - 1.7%
AMR : 20 - 30,000 pg/mL



Small Sample Volume

Pick up volume : only 10µL



병원전문 구인구직 플랫폼 ‘병원잡’, 모바일 웹사이트 리뉴얼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전문 구인구직 편의성 업그레이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 병원잡이 모바일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병원잡은 사용자들의 니즈 충족은 물론 전반적인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병원잡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잡았다. 첫 번째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텍스트를 줄이고 이미지의 비중을 높였다. 두 번째로, 사용자 유형에 따른 맞춤 홈 화면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검색 단계를 간소화하였다. 세 번째로, 고객의 사용빈도를 반영한 메뉴 구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제공했던 홈 화면을 사용자 유형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메인에 배치하고, 이용자가 위치한 지역의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번거로운 정보 탐색 단계를 최소화했다.

김미 병원잡 대표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 목표는 고객 편의성으로, 이용자들이 보

다 쉽고 편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준비를 거쳐 진행하게 됐다”며 “리뉴얼을 시작으로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응 의료·방역 관계자들, 산사(山寺)서 쉬어가세요” 불교문화사업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100여 사찰서 최대 3박4일 무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스님)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를 위한 특별지원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련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00여개 사찰에서 진행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에 최대 3박4일, 동반 1인까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공익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 후 사찰에 코로나19 대응 근무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근무지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된다. 병원 근무자는 재직 증명서도 증빙이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1500명을 대상으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한 의료인은 “심신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알게 됐다. 평생 기독교 신자로 살았기에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대면했던 것이 경이로웠고, 마음의 위안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7월에 참가한 또 다른 의료인은 “의료진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같이 오게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의료진 및 방역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피로감이 클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사에서 휴식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올해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 나눔 템플스테이’ ‘가치 나눔 사찰음식’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준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천시교육청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방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설치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 운영 현황을 살피고,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교육부 및 해당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질병경사 전문의료기관(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이 위탁운영하는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인천·대전·대구·부산에 설치되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전문인력에 의한 PCR 검사가 진행된다. 이동검체팀은 확진자 발생 후 다수의 접촉자가 나온 학교에 직접 방문해 검체 채취를 실시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참관하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검사 현장의 피로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검사 업무의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현재, 학생·교직원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도입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씨젠 모바일 랩’)는 오염 방지를 위한 음압 설비와 대량검사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하여 신속한 이동과 현장 설치가 용이한 분자진단 검사실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한 바 있다.



2022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2년 4월 25일(월)까지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제언, 발언대(건의) 등의 내용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구요.

- 접수기한 : 매월 24일까지
- 기고문 주제 :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 접수방법 :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BECKMAN COULTER

밤낮없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에
벡크만쿨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벡크만쿨터의 최신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NVITATION

Atellica Online Seminar

Always on. Always in touch.

아텔리카 사용자를 위한 정기 온라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에서는 아텔리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다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개최되는 정기 세미나는 Diagnosing and monitoring diabetic patients with the new ADVIA Chemistry A1c_E Assay, Atellica Cardiac assay 소개 및 TNIH 국내 논문 공유, Atellica System Fluids & Consumables 역할 등에 대한 사용경험과 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텔리카 사용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30-4:00

월별 주제

- 2/18 (금) Diagnosing and monitoring diabetic patients with the new ADVIA Chemistry A1c_E Assay - 박윤미
- 3/18 (금) Atellica Cardiac assay 소개 및 TNIH 국내 논문 공유 - 천진
- 4/15 (금) Atellica System Fluids & Consumables 역할 - 전기정

참석 방법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는 팀즈 (Teams) 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측 QR code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며, 또는 등록 담당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참석 방법에 대하여 안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Teams 앱이 없으신 분께서는 QR code 접속하신 뒤, Teams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해주시십시오.

등록 문의

지멘스 헬시니어스 DX Training Center 박희경 사원
(이메일: heekyung.park@siemens-healthineers.com)

녹화본 신청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 된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 녹화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우측 QR code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대전충청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예방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대의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및 지역 검사센터에서
 신속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최다 검사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집중 조명



지역사회 검체 역량 강화 기여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 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 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 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대전충청 검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98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